

추수감사주일

여태권 (목사, 전북 완주 율곡교회)

본문 : 눅 17:11-19

제목 : 은혜를 아는 사람

추 수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가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사신 훌륭한 사람을 우리 나라의 인물 중에서 한 사람 소개해 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유명한 한 정승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황희 정승입니다. 임금님 다음인 영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겸손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하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 큰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에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가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버드나무에게 절을 하는 것은 웬 일이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웬 일인가하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상한 일인데 지금 임금님 다음으로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영의정인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신이상이 발생했는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 중의 한 사람이 물었습

니다. “대감님,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되십니까?” 그 때 황희 정승은 대답했습니다. “응, 자네들은 잘 모를 것이네, 내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놀기만 좋아해서 글방 선생님이 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어 내 종아리를 때렸었네, 그 때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오늘날 정승이 되었네, 그 때 종아리를 때리시던 훈장님은 돌아가셨으니, 나를 깨우쳐 준 저 버드나무에 절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비교하여 보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실에서 선생님이 꾸중만 심하게 하여도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일러바쳐 교장선생님께 항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이 벌을 주거나 매를 들어 때리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황희 정승이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매로 때리신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을 하면서 문안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 너무도 큰 차이가 나며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잊어가는 세태의 단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17장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눅17:15).” 예수님은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절하는 이 한 사람에게 문둥병을 낳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차게 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17:19).”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살 수 밖

에 없었던 사람에게 이 칭찬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기 위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은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식사를 하셨는지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밥 한그릇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빛물을 마시며 (한응규씨)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한껏 마음이 설렌다. 아스라히 잊혀진 가슴시린 추억들이 내 앞으로 다가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초 우리는 서울 창신동에 살았다. 어머니는 매일 같이 장사를 나가셨는데 집에 있는 나와 누님을 위해 가끔 밀가루죽을 쑤어 놓고 나가셨다. 말이 밀가루죽이지 시장에서 주워온 시레기에다 밀가루 몇 숟갈 넣어 끓인 것이라 죽에서는 시레기 냄새가 많이 났다. 그 때 다섯 살인 나는 누나가 먹을 죽을 휘휘 저어 밀가루 덩어리만 골라 먹곤 했다. 어느 날인가 집에서 빈둥거리던 내가 미처 밀가루 알갱이를 다 골라 먹기 전에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당황한 나는 끌어안고 있던 죽을 앞으로 밀어 놓았는데 대충 눈치를 챈 누나는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혼날 줄 알고 긴장했던 나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배고픈 와중에도 죽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책보통이에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던 누나, 그 봉투에는 점심을 끓은 누나가 어머니께 가끔 받은

일전으로 산 풀빵 열 개가 들어 있었다. 누나와 나는 풀빵과 죽그릇으로 때아닌 만찬을 즐겼다. 그 때 밖에는 천둥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움막의 지붕은 루핑으로 덮어 놓아 빗물이 움막 안으로 새들어 왔다. 그리고 그 빗물은 죽그릇에도 떨어졌다. 누나와 나는 빗물이 더 스며들기 전에 죽을 먹어야 했기에 머리를 서로 부딪치며 숟가락을 바삐 놀렸다. 툭툭한 죽물 위에 투명한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먼지를 머금은 매캐한 빗물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밥 한 그릇을 아무 생각없이 먹어 치울 수 있지만 그 한 그릇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더욱 소중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큰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토양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밥이 너무 천하게 여겨지고 쓰레기로 버려져서 처치하기에 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밥 한 그릇에 담긴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여도 몸이 아프면 먹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감사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

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 든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주며 “십일조를 먼저 떼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십일조는 무슨 놈의 십일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십일조를 내라는 것입니까.” 하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꼬옥 쥔 다음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간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15:10)”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크고 놀라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